

# 국회의원 후보자 농업·농촌 정책 합동토론회

이철우 후보, 특별법제정하고 쌀개방 법률적 기본안 정비후 재협상  
 고조홍 후보, 시간이 지체되더라도 농민단체의 여론수렴후 재협상  
 김유근 후보, 전문가로 연·포천지속발전추진위원회 구성후 재협상



▲합동 토론회에 나란히 앉은 고조홍, 이철우, 김유근 후보(왼쪽부터)

지난 8일 여성회관에서 포천축산발전연대, 연·포천 농민회, 한국농업경영인 연·포천 연합회의 공동주최로 '제17대 연·포천 국

회의원 후보자 합동토론회'가 열렸다. 이날 토론회에는 한나라당 고조홍 후보, 민주당 김유근 후보,

열린우리당 이철우 후보가 토론자로 참여했고 자민련 권영백 후보는 일정상 불참했다.

토론회는 대진대학교 허훈 교수의 사회로 진행됐으며 패널로 연천군 농민회장 박종열, 축발연 공동대표 박호근, 연천농민회정책실장 이길연, 포천한농연정책부회장 양훈근 등 4명이 참여해 지역 농촌 현안에 대한 질문을 했다.

이날 토론회는 ▷2004년 쌀 재협상문제 ▷축산법에 의한 축산업 등록제와 관련 무허가 축사문제 양성화 대안과 친환경 축산분뇨 처리 대책 방안 ▷협동조합 개혁에 관한 사항 ▷농민 복지 문제(의료, 교육, 노인, 소득보장 등) ▷접경지역 농민 불이익에 대한 대책방안 등에 대한 주제로 이뤄졌다.

세 후보는 각 주제에 따라 나름대로의 해결방안과 개선점 등을 펼쳐 놓았다.

열린우리당 이철우 후보는 쌀 재협상문제에 대해 "정부와 여당이 농민을 살리는 입장에서 협상에 임할 것이고 식량자급을 특별법을 제정해서 쌀 개방의 법률적 기본안을 만든 후 협상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한나라당 고조홍 후보는 "지난 10년 동안 정부에서 이 부분에 대해 이뤄놓은 것이 아무것도 없다. 재협상과정에서 농민단체의 여론을 수렴한 후 오랜시간이 걸리더라도 해결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김유근 후보는 "전문가들을 모아 연·포천지역지속발전추진위원회를 구성해 새롭게 개척해 나가야한다"고 주장했다.

이번 토론회는 축산, 경종, 수도작 등 현안문제에 대한 대안과 정책은 무엇이고 지역발전의 소신은 어떤 것인지 토론회를 통해 지역에 적합한 인물을 선택하기 위해 마련된 것이다.

김국진 기자 k2jina@hanmail.net

## 포·토·뉴·스



▲1987년 43번 국도 축식고개 포천시 입구에 세워졌던 호국로 이정표가 철거돼 종합운동장 한 구석 간판에 달린 채 방치되었다. 이같은 사실에 대해 '후세인 동상 철거'에 비유하는 여론이 있다. 이정표는 대운동장 앞에 보존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2004년 기존의 호국로 이정표를 대신해 포천시를 상징하는 조형물이 그 웅장한 위용을 자랑하고 있다. 이 조형물은 자연과 사람이 만나는 포천시를 상징하고 있다.

## 사법연수원생, 의정부교도소 참관

수용시설 둘러보며 교정행정에 대한 이해 증진

사법연수생 248명(지도교수 김근수·이부영 부장검사)은 지난

2일과 3일 양일간에 걸쳐 의정부 교도소를 방문하여 교육시설과 수용환경 등을 참관했다.

교정시설에 대한 이해증진을 위해 실시된 이날 참관행사에서 사법연수생들은 "수용자 정보화 교육과 직업훈련 교육 등 교정교육 현장을 직접 접하여 보니 교정의 역할에 대한 이해를 높이는 데 큰 도움이 되었다"는 소감을 밝혔다.

안규호 의정부교도소장은 인사



말을 통해 "교정행정의 목표는 준법의식 확립과 교정교육을 통한 사회 적응 능력 향상에 있다"며 사법연수생들이 교정행정 발

전을 위해 많은 관심을 가져주기를 당부했다.

김영복기자 best114@hitel.net

## 어머니! 보고싶어요!!

### 포천시청 뒤 김기순씨 댁 대문앞 발견 1974년 노르웨이 입양, 어머니 보고싶어요



세상에서 가장 큰 소원을 말하자면 저의 친어머니와 가족들을 찾는 것입니다. 어머니와 헤어진 후에 저의 인생은 뭔가 빠진 듯한 상태가 지속되었습니다.

마치 나무가 잘려져 건강하고 강하게 자랄 수 있는 장소로 옮겨진 것 같다고 할까요. 하지만 그 나무의 뿌리는 원래 있던 장소에 그대로 남아있죠. 저의 고향 한국에 있습니다.

저는 제 잠재능력을 충분히 발휘하지 못하고 살아왔습니다. 거기엔 항상 질문들이 가득했죠. 뿌리가 없는 즉, 불안정한 삶이었습니다.

어머니를 만나보고 싶습니다. 저는 어머니도 저를 생각하고 있고 한번도 잊은 적이 없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어머니는 저에게 더 좋은 기회를 주고자 저를 포기하셨을 것이라고 믿고 싶습니다. 저희를 헤어지게 만든 운명이 원망스러울 따름입니다.

때로는 어린아이인 저를 보게 됩니다. 어머니의 사랑을 찾아 헤매는 어린아이를 어머니는 안으려고 합니다.

모든 것이 잘 될 것이라고 눈물을 닦아 주고 저의 머리

를 쓰다듬어 주시면서요. 제 인생의 첫 장을 잃어버린 느낌입니다. 그때 무슨 일들이 있었는지 알 길이 없습니다.

곧 그 해답을 찾게 되기를 바랍니다.

어머니를 만나게 해달라고 하느님께 빌어봅니다.

어머니를 만나면 제 마음이

완전히 질 것 같습니다.

1974년4월21일 발견될 당시 저의 키는 74cm에 몸무게는 8.5kg이었습니다. 제 혈액형은 B형입니다.

저는 포천군 포천면 신음리(군청뒤) 김기순씨 댁 대문 앞에서 발견되었습니다.

당시 저는 진달래색 포대기에 싸여 있었고 상의는 하늘색 목고리에 내의를 입었으며 머리는 약간 파마머리였습니다.

저의 한국이름, 김미숙이 주어졌고 생일도 1973년7월 20일로 추정되었고, 지금까지 쓰고 있습니다.

며칠이 지나 저는 홀트아동복지회로 입양 의뢰되었고, 그 해 9월 노르웨이에 입양될 때까지 위탁가정에서 보살펴졌습니다.

저를 입양한 분들은 아주 사랑이 많으신 분들입니다. 그래서 항상 감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항상 슬픔의 그림자가 남아 있습니다.

저의 부모님을 아시거나 관련이 있으신 분은 홀트아동복지회로 연락 바랍니다.

연락처: 홀트아동복지회 사후상담과  
 양혜선: 02-322-8104,322-8302

## 사건 || 사고

### 훈련 도중 산발 발생해 1.5ha 소실

지난 8일 오전 11시 30분께 포천시 이동면 노곡리 8사단 수색대대 종합훈련장에서 연막탄 훈련 중 발화로 산발이 발생했다. 참나무 등 1.5ha를 태운 불은 헬기 5대와 공무원, 군인 등 800여명의 인원이 동원돼 3시간 만에 진화됐다. 포천시 관계자는 "위낙 약산이기 때문에 진화가 힘든 점도 있었지만 2000년도에 화재가 발생했던 곳이어서 피해가 크지는 않았다"고 말했다. 한편 군에서는 "전조기에 실시하는 훈련으로 인한 산발 발생이 잦아져 앞으로 가급적 실사격 훈련 등 산발발화요인이 되는 것들을 자체 하겠다"고 밝혔다.

### 유통기한 위조 식품업자 구속

포천경찰서는 지난 2일 유통기한이 지난 두류를 재포장하여 판매하려 한 혐의(식품위생법위반)로 이모(53)씨를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씨는 지난달 16일 포천시 소흘읍 한 창고에서 유통기한이 지나 반쯤된 두류 200박스(100kg)중 상태가 양호한 두류 3kg을 선별한 뒤 유통기한과 재포장회사를 변경, 판매하려 한 혐의다.

### 양주 봉양동 봉양공단 화재 인근섬유공장 7~8개동 태워

지난 9일 새벽 4시께 양주시 봉양동 봉양공단에서 불이 나 인근 섬유공장 7~8개동을 태웠다.

화재 현장에는 헬기 1대, 소방차 40대, 소방대원 50여명이 출동해 진화작업을 벌였으며 육군 8857전차부대 병력이 출동, 주민대피를 도왔다.

이날 화재로 인해 5억원의 재산피해가 발생했으며 다행히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다.

경찰은 공단내 w텍스타일 공장에서 불이 시작된 것으로 추정하고 있으며 자세한 원인을 조사 중이다.

### 거동불편 독거노인 화재로 숨져

지난 5일 오후 5시 50분쯤 포천시 이동면 농가에서 불이나 집주인 정모 노인(88)이 불에 타 숨졌다. 불은 옷장, 가재도구와 6평 가옥내부를 태워 55만원의 재산피해를 낸 뒤 30여분 만에 꺼졌다. 경찰은 거동이 불편한 정 노인이 혼자 밥을 지어먹으며 지내왔다는 이웃들의 진술로 미루 저녁을 짓기 위해 휴대용 가스렌지를 사용하다 불을 낸 뒤 미처 불길을 피하지 못한 것으로 보고 정확한 화인을 조사 중이다.

이제부터 혼자 다니지 마세요.

믿을 수 있는 길동무 까미고가 있습니다.

강북센터 : 서울시 도봉구 쌍문2동 653(삼환프라자 4,5F)  
 전화주문 : 1588-2161  
 회원번호 : 404 000 949  
 휴대전화 : 011-9104-6664  
 홈페이지 : http://www.altwell.co.kr



Altwell

엘트웰(주)

\*Camigo란? 스페인어로 Camino(길)+Amigo(친구)의 합성어입니다.